

“매일 오늘 같으면 좋겠어요” 굵은 날씨 속 동심 ‘활짝’

어린이문화원 일대 나들이객 붐적... 국립광주과학관, 각종 공연·체험·이벤트 등 다채

103번째를 맞은 어린이날인 5일 광주 도심 곳곳에선 동심이 활짝 웃었다.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아빠·엄마 손을 꼬옥 잡고 활짝 웃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어린이문화축제 (HOW FUN 11)가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는 오전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빠의 무릎을 탄 채 야외 마임(1인 무언극) 공연에 집중하던 한 여아는 손뼉을 짹짹 치며 해맑게 웃었다.

아이들은 마임 공연자의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틈틈이 선 보이인 마술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다. 알록달록 우산을 손에 든 아이들은 굽어지는 빗줄기에도 좀처럼 자리를 일어설 줄 몰랐다.

비에 젖어 감기라도 들까 애대는 부모
들은 실내 행사장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
했다. 뽕 모양 골판지를 도화지 삼아 색연
필 그리기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사뭇
진지하게 저마다의 그림을 형형색색 채워
나갔다.

어린이문화원 입구 한 칸에 마련된 원격 조종 로봇 강아지 시현 행사장도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로봇 강아지가 푹푹뛰어 뛰거나 앞발을 내밀 때면 아이들은 ‘우와’, ‘와’를 연발했고, 다가오는 로봇강아지를 향해 손을 쭉 뻗었다.

여아들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하츠피’ 인형 탈을 쓴 행사 요원의 곁을 떠날 줄 몰랐다. 졸졸 따라다녔고 힘차게 양손



어린이날인 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린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HOW FUN) 11 행사 중 실외야외마임 공연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뉴스시스

를 흔들며 난가움을 표했다. 캐리티 인형 탈과 함께 하는 기념사진 촬영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7살 난 딸의 손을 꼭 잡은 엄마 김모(38)씨는 “아이가 어린 이날 날씨가 온 좋다며 아침부터 울상이었는데 실내 행사장에서 여러 체험을 하며 함께 놀 수 있어 기분 좋다. 신나게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간 스트레스를

맞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초등학생 이연우(9)군은 “우스꽝스러운 미술시가 한 아의 공연이 재밌었다. 비록 비는 좀 맞았지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설레임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기 체험에 열중하던 김모(6)양은 “아빠·엄마와 하루 내내 같이 노니 기분이 좋다. 출근 안 하고 매일 이렇게 함께 놀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날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이날
 을 맞아 각종 공연, 체험, 이벤트 등이 다
 채롭게 펼쳐졌다.
 환경 미술 공연 '초록술사 매직쇼', 아이
 들의 상상력을 높여주는 '숨사탕 매직쇼',
 풍선을 이용한 '풍선 아트 공연' 등이 열려
 동심을 설레게 했다. /오권철 기자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여수시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순천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8382건(사망 202명) ▲2023년 8344건(사망 228건) ▲2024년 8272건(사망 20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전남 시·군 중에서도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여수시로 집계됐다.

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여수는 전

전남서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곳은 여수... 2년 연속 최다

지난해 1416건 발생... 사망 1위 순천... 무안·나주 사고 증가세

년(1304건) 대비 8.59% 증가한 1416건을 기록, 2년 연속 전남 최다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목포시 1197건, 순천시 1053건, 나주시 626건, 광양시 608건 등 순이었다.

2022년까지 전남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목포였으나, 2년 새 18.57%(273건)이 줄어들면서 1위 자리가 여수로 바뀌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순천시로 한 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수와 나주가 각각 16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암군도 13명이 발생해 4번째로 많

전남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수를 비롯해 나주와 무안군의 사고 건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주는 지난해 사고가 전년(521건) 대비 20.15%(105건)이 더 늘었다. 무안은 지난해 308건으로 전년(220건)에 비해 40%(88건)나 급증했다.

나주와 무안은 각각 빚가람혁신도시 조성
성과 전남도청 이전 이후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뤄지는 등 인구가 증가, 출

퇴근 인구도 늘어난 게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고령군은 같은 기간 198건에서 141건으로 28.78% 감소했고, 완도군도 146건에서 121건으로 17.12% 줄어드는 등 교통사고 감소폭이 컸다. /송현근 기자

‘시민 집결지’ 광주송정역 5·18사적지 지정 본격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집결지인 광주송정역을 5·18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9일 광주송정역을 5·18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산구·한국철도공사
는 간담회를 열고, 송정역 5·18사적지 지
정 이후 재산권 행사 제약 여부에 대한 법
률자문을 받았다.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철도
공사는 사적지 지정 시 재산권 행사에 제
약을 받을까 우려해왔다.

법률 자문 결과 광산구와 철도공사는 송정역이 5·18사적지가 지정된 이후에도 공사가 역사 일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각각 받았다.

5·18사적지는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존해야 하지만 송정역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 1980년 당시 원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철도 공사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조만간 광주시에 광주송정역 5·18사적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송정역 앞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시
위 군중이 모였던 곳이다. 광주 지역에는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에 5·18사적지 29
곳이 위치해있다. (김준행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